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 내일부터 모이는 '2019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 한마당 잔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시오. 전국의 공동체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지역별사랑방 후반기 방모임은 다음 주간에 시작합니다.
-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공동체학교들이 2학기를 맞아 개학합니다.
꾸러기학교 26일(월) 어린이학교 23일(금) 멋쟁이학교 25일(일)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식 장로 · 옥혜숙 권사 가정 (감사)

한혜정 · 구경본 집사 가정 (감사)

한미선 집사 (아버지 첫 기일)

강단을 꽂으로 : 진웅용 · 우창숙 집사 가정 (아버님 기일)

제 36 - 33호
2019년 8월 1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신세계백화점 1층 영풍문고앞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방교회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원로목사/ 정태일 담임목사/ 최성필

부 목사/ 이원영 권혁신 이동기 협동목사/ 박광희

장로/ 홍상성 김영식 홍정길 안상호 은퇴장로/ 이용신

전도사/ 해은 권재만 정재훈 장영미 정다운 최기찬 이어진

선교사/ 조남희 김하진 노효중 김희정 윤연섭 이양숙 최장수 허윤정 임채정 손희정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감격 있는 공동체생활

사랑방공동체의 창립정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감격 있는 공동체생활입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편 중 하나로 다 함께 살아 낸 이번 여름공동체생활 때의 감동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사랑방의 여름공동체생활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사랑방의 온 식구들이 다 같이 함께 살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3박 4일 동안 꾸려기사랑방부터 무림사랑방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한솥밥을 먹으며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여러 시간들이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흩어져 있는, 보고 싶은 식구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둘째 날 오후에 사랑방을 거쳐 갔던 국내 목회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방의 35년의 여정에서, 특별히 초기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의 증언과 소중한 추억들이 그분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해지는 순간, 사랑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참여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사랑방의 모습은, 이전에 계셨던 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전에는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알았더라면 지금은 훨씬 입체적이고 인격적으로, 생동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초청되신 분들도 예전의 기억을 추상하면서 그 때 경험했던 감동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사랑방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돌아올 때는 친정 같은,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있었던 선교사님들의 사역소개의 순서도 정말 감동과 재미가 넘쳐났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수고가 다채롭게 증언되고 소개되어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떤 곳은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압제와 학살이 심해서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움을 더해주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한다기보다는 오랜 만에 고향에 돌아온 이들이, 자신들을 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식구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겪어왔던 일들을 편안하게 풀어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식구라는 것이 느껴져서 더욱 좋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선교와 섬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었을까요? 사랑방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한 상에 둘러서 공동식사를 같이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경험의 시간들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함께 몸을 부대끼며 땅 훌려 일했던 삶의 경험들이, 지금은 비록 살아가는 자리와 역할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임을 그리고 한 가족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올바른 교회의 모습에 대한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한국교회갱신이라는 구체적인 소명을 가지고 사랑방 공동체는 시작했습니다. '땅에 있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처럼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고민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의 수고와 성김덕에 사랑방이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버텨주고 함께 살아온 이들과 현재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화 되고 파편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며, 좁은 길을 걷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힘든 걸음 안에 삶이 있고 감격이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롬14:17)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관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한공협 한마당 잔치가 내일부터 사랑방공동체에서 2박 3일 동안 펼쳐집니다. 한국의 여러 공동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삶을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감격 있는 공동체생활을 꿈꾸며 아름다운 삶의 경험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전도사

8월의 크리스마스

1998년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기억하며, 이 영화로 인한 감동이 남아있었다면 이번 2019년 여름공동체생활에서의 크리스마스는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죄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시기로 작정하고 보내신 기가 막힌 날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도 마치 12월처럼 덥고 지친 사람들이 피서지로 떠나고 교회는 경배와 찬양을 잠시 내려놓는다는 생각 때문에 안타까움이 늘 있었던 저는 사랑방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만나며 21년 전 사랑하는 남편과 우연히 들렀던 사랑방교회에서 받았던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아 누리며 지친 영혼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공동체생활은 정태일목사님의 깊은 영성에서 물어나오는 의연한 진행과 모두가 협력하여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이 저로 하여금 깊이 빠져들게 하였으며 특히 진행 중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며 그동안 아팠던 마음이 치유되고, 자유 하지 못했던 내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동체생활 동안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저의 손을 꼭 잡고 걸으셨던 성령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저를 통해 성숙한 찬양을 받으시고자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인간관계가 어그러질 때마다 낙심할 때도 많았는데 관계가 고통스러운 까닭은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찾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말씀과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라는 말씀이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장 인격적인 사람은 나보다 남의 말에 경청하는 사람이라는 메세지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신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기뻐하고 삶을 나누고 아픔을 서로 공감하는 모습들은 초대교회의 그림자처럼 너무나 행복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는 연단도 시련도 그리고 고난도 비포장 길에 작은 돌멩이처럼 촘촘히 박혀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걷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 찬양하며 나의 갈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 아름다운 수목원의 한 자락에 터전을 마련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강도 만난 이웃을 찾아 떠나는 심정으로 아픈 이웃을 돌아보며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사랑방교회 지체들과 어울림 사랑방 식구들과 나누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교제가 더욱 깊이 무르익어가기를 소망하며 이번 주일에 만날 그리운 모습들을 가슴으로 그려봅니다.

어울림사랑방 이남순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 시 편 46편 1-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베드로후서 3:1-18

제목 :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도 : 최성필 목사

찬송 : 539 183 187 484

1. 내용관찰(What)

1-7(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다)

8-13(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와 재림신앙에 대한 권면)

14-18(결론적 권면)

2. 내용의 의미(Why)

전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신다.

<주님의 날에 나타날 구체적인 현상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10>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진다<10>

-원소들은 불에 녹는다<10>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이다<10>.

-모든 것이 녹아버릴 것이다<10>.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이다<12>.

3. 의미의 적용(How)

전체적용)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갖자.

<구체적인 적용>

1)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자<11,14>.

2) 회개하자<9>.

3)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자<18>.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선양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시 편 46 : 1-11 설교자
성가대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뚜른꿈사랑방
설교 “이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 죄성필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웅답의 찬송
*봉헌기도
*영광찬송
*위탁의 말씀
*강복기도

* 표는 일어서서 애매를 드립니다.

† 현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돋는 이들 안내 : 윤호중 하경임 / 통역위원 : 한혜정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인도자 : 최성필목사
설교자 : 최성필목사

시 편 62 : 1-2	인도자 다함께
32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히브리서 8 : 12	인도자 다함께
401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공동기고문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려움을 이기는 밀을의 고백

고난 중에 있는 시인. 시편 46편은 고라자손이 지은 시로서 시인이 고난 중에도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이 처한 삶의 상황은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는 절박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반응했는데<2.3>. 시인이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 '힘', '구원자'로 고백했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 고난 중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믿음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신양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이며, 힘이 되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삶의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최성필 목사 / 기도: 허철영 집사

중국 유학을 준비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가기(2019년. 6. 24 기준) D-46일 남은 3학년 엄하민입니다. 학교에서 선배들이 중국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중국에 가는 날이 오긴 할까?' 생각하며 저한텐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멋쟁이학교 3학년이 되어 중국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비자 서류도 준비하고, 중국어도 배우고, 부족한 옷도 사며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준비하고 있지만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막상 생각과 마음은 정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1년, 새로운 환경, 언어공부 등 막연하게 걱정만 하다 중국에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 생활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다녀오면 재미있는 일도 많이 생각나고, 다시 가고 싶다고 합니다(물론 아닌 선배도 있습니다). 이런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막 중국에 가고 싶고 친구들과만 지내는 생활이 너무 기대되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해도 잘 지내든, 못 지내든 1년이 지나면 잘 돌아올 걸 알기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변화에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푸른꿈사랑방 엄하민

앞으로 중국을 가기까지 51일밖에 남지 않았다. 내가 중국을 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중국 가는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점점 실감이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실감이 안 난다. 중국 가기 전 학기라서 그런지, 이번 학기는 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다.

아직 중국 가는 것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일리온다. 1년 생활의 짐을 챙기는 것도 막막하지만, 제일 걱정되는 건 외국에서 엄마아빠 없이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게 싫은 건 아니지만, 외국에서 친구들과 한집에서 1년이나 생활한다는 자체가 막막하고 걱정스럽다. 중국에서의 학교생활도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 중국에서 다닐 학교는 국제학교이고,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긴장된다. 나 스스로가 영어를 못하진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서 직접 경험해보는 것은 또 다를 거기 때문에 걱정되고 무섭다. 내가 학업적인 부분에서 잘 따라갈 수 있을지도 확신하지 못한다.

무섭고 걱정되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기대되는 것도 있긴 하다. 하나는 교복을 입는 것이다. 우리 학교는 항상 사복을 입기 때문에 맨날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신경 써야 하는데, 거기선 교복을 입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좋다. 그리고 그냥 전부터 나도 교복을 입어보고 싶었다. 일반 학교 학생들은 교복을 입는 게 항상 부러웠는데 중국에선 나도 교복을 입을 수 있어서 좋다.

친구들과 한집에서 사는 것도 조금은 기대가 된다. 서로 싸울까 봐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살며 더 가까워지는 게 기대된다. 우리 학년이 같이 놀기도 하고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것 같아서 좋다.

이제 중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아서 별로 느껴지는 게 없지만, 중국에서 우리 학년이 서로 더 친밀해지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면 좋겠다.

푸른꿈사랑방 유희정

비 오는 날의 회상

비가 내린다.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며 제법 굵은 빗줄기가 떨어진다. 빗소리를 들으니 내 고향 부산의 교회 양철지붕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생각난다. 양철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어떤 음악보다 리듬감 있고 운치 있는 그 소리…

십분만 걸어가면 광안리바닷가가 나오는 내 고향 교회는 참 작았다. 게다가 스무 계단 쯤 아래로 내려가야 예배당을 만나는 평지보다 움푹 꺼진 곳에 있는 교회였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단체 관람으로 '벤허'를 본 후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졌다. 영화 속 주인공 벤허가 사막을 걷다 목말라 쓰러졌을 때 물을 나누어주신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목사님 딸인 친구를 찾아가 교회를 나가겠노라고 일요일 날 만나자고 했다. 우리 교회 옆에는 아주 큰 소나무가 서있었는데 그 소나무 아래에서 학생부 예배 시간인 오후 2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약속을 잊고 나오지 않았고 나는 용기를 내어 스무 계단 아래 예배당으로 직접 들어갔다. 예배당 안에서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다. 시편 1편 말씀이었다.

그 날 이후 교회는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양철지붕 옆에는 무화과나무가 있었다. 늦여름이면 탈스러운 열매가 맺혔다. 지금까지 먹어본 무화과 중에 가장 맛있는 무화과 열매였다. 무화과나무 옆에는 바짝 예배당 창문이 있고 1.5미터 정도의 폭을 두고 목사님 사택이 있었다. 방 세 개가 나란히 있었는데 맨 갓방은 언제나 청년들로 북적거렸다. 목사님 딸 다섯이 쓰는 2평 남짓한 방 안에 오글오글 10명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마셨다. 언니들이 타주는 커피 둘, 설탕 둘, 프림 셋의 황금비율 커피 한 잔을 먹는 기쁨이란! 때때로 밥도 먹었다. 사모님이 끓여주시는 된장찌개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지만 그 때 우리는 참 행복했다. 함께 있는 그 시공간이 그저 좋았다.

오늘 그 작은 방 한 자락에 함께 앉아있던 태규 오빠와 함께 포천 무령리에서 빗소리를 들고 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신기하고 감사하다.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루터기사랑방 전향옥 집사

함께사는 이야기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시편 23편

인도 : 정재훈 전도사

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중국을 위한 기도>

이번 9호 태풍 레끼마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중국 동부지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165만 여명의 이재민들의 삶의 터전이 하루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교회 간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민들레공동체를 위한 기도>

1. 전체 건물 보수작업과 시설 정비를 위해
2. 공동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계속되도록
3. 학교교사와 여러 기관에서 일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공동체를 위한 기도<한공협 한마당 잔치를 위한 기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공협 한마당 잔치가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여름 무더운 한 철이 지나갑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공동체 자체들도 대부분 한 주간을 휴가로 지냈습니다. 광복절이 지나면서 가을이 다가오는지 밤에는 제법 기온이 떨어집니다. 금요일에는 다음 주에 있을 한공협 한마당 잔치 준비를 위해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준비 청소를 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준비는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평소에 손이 잘 가지 않던 현관문과 복도와 계단, 천정까지 수고의 손길들이 구석구석 닿았습니다. 한층 깨끗해진 모습에 마음까지 시원합니다. 아브라함 장막도 새 단장이 한창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운 날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멋쟁이 3학년 학생들이 공화, 김혜연 선생님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환송을 받으며 떠나는 멋쟁이와 선생님 모두 건강하게 1년 간의 유학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 정재훈 전도사 >